

이덕일의 '역사의 창'



이성계가 천명을 받은 이유

이성계가 고려 개경에 처음 발길을 들여놓은 것은 만 스물한 살 때인 공민왕 5년(1356) 3월이었다. 그때 이성계는 격구(擊毬) 대회에 나갔는데, '태조실록'은 이때 "은 나라 사람들이 몹시 놀라면서 전고(前古)에 듣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능가를 간파하는 외교적 능력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보다 중요한 것은 고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큰 고목이 쓰러지는 것은 비바람 때문이 아니라 안의 벌레 때문이란 이야기

리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새 나라를 개창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인물인 삼봉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전하(이성계)께서는 잡치(漕漕) : 즉위하기 전의 집)에 게실 때 친히 그 폐단을 보시고 개연히 사전(私田) 혁파를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셨다"고 말했다

토지문서)을 불살라버리고 1391년 과전법(科田法)을 반포했다. 과전법은 비록 이성계와 정도전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은 "전조(前朝 : 고려)에 비하면 어찌 만 배나 낫지 않았는가"라고 자랑할 정도로 혁명적인 토지개혁이었다

그로부터 36년 후인 1392년 이성계는 475년 동안 유지되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창한다. 이성계는 어떻게 조선을 개창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집안이 대대로 갖고 있던 무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의 집안은 칭기즈칸의 막내 동생 솟치근 왕가에 소속되어 지금의 연변 일대를 차지했다.

이 글에서 정도전은 이성계가 하려던 사전 혁파가, '경내(境內)의 모든 토지를 남김 없이 몰수해서 공가(公家 : 국가)에 속하게 하고, 백성의 수를 헤아려서 농토를 나누어 주려 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옛날의 올바른 토지제도'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역성혁명파는 위화도 회군 후 고려의 모든 전적(田籍)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들 사무실은 김 씨 직·간접적으로 컨설팅을 해 온 부서여서 주목된다. 응당 검찰은 사업 컨설팅을 연결 고리로 김 씨와 업체의 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러 할 것이다. 이밖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광주시의 대규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료칼럼

척추질환 치료의 시작은 올바른 허리 관리



김연성 김강신경외과 원장

디스크 탈출증은 오래 앉아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 잘 생기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서 있을 때보다 디스크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쉽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노화 현상도 가속화돼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불규칙한 생활, 술, 담배, 스트레스, 비만, 외상 등도 악화의 원인이 된다.

이것 근본적인 비수술적 시술이다.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마취 하에서 시행하고, 보통 20~30분의 짧은 시간 내에 시술이 끝나며, 칼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바늘을 삽입하는 시술이기에 흉터가 없다. 또한, 입원기간이 1박 2일 정도로 짧아 사회 복귀가 빠르다.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시술인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또한 이미 대중화 돼 있는 시술로,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역시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신 상태에 무리를 주지 않고, 5~6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으로 병변을 보면서 레이저와 고주파 특수 장치들 이용해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최소침습 시술이므로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척추와 관련된 통증을 느낀다. 그 원인과 양상, 치료도 다양해서, 그만큼 척추 질환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도 많아지게 된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허리 디스크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하중을 지지하고 분산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고 동시에 허리를 움직일 때 관절 역할까지 하는 연골 구조가 디스크(추간판)다.

척추 질환 치료의 최선책은 운동 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이지만, 이미 발생한 디스크 탈출증 치료의 첫걸음은 단기간의 침상안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이른바 보존적 치료 방법이다. 과거에는 디스크 탈출증 환자들에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곧바로 허리 수술을 시행하곤 했다. 하지만, 실제로 90% 이상에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 즉,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신경차단술'로 잘 알려진 '신경차단술'이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다. 신경차단술은 신경 주위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종과 유착을 감소시켜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로, 컴퓨터 영상 투시 장치 하에서 안전하게 꼭 필요한 부위에만 선택적 치료가 가능해져 치료 효과가 높다. 따라서, 신경차단술은 자연 치유를 기다리면서 심한 통증을 완화시킬때,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 있을 때 매우 효과적이다.

흔히들 허리 디스크 시술은 치료의 종착역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재발 방지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치료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술보다 더 중요한 점은 시술 후 올바른 허리 관리에 있다는 것이다.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면 곧이어 재발 방지 치료와 디스크 관리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척추전문의를 찾아 병이 깊어지기 전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건강한 디스크는 수분을 많이 함유해서 탄력이 아주 좋고 일정한 모양을 유지한다. 그런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딱딱해져 충격 흡수가 안 되면 허리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해지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거나 파열돼 척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다리 통증이나 저림 증상도 유발된다. 이를 '디스크 탈출증'이라 한다.

척추 질환 치료의 최선책은 운동 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이지만, 이미 발생한 디스크 탈출증 치료의 첫걸음은 단기간의 침상안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이른바 보존적 치료 방법이다. 과거에는 디스크 탈출증 환자들에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곧바로 허리 수술을 시행하곤 했다. 하지만, 실제로 90% 이상에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 즉,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디스크 탈출증은 통증 때문에 괴로운 병이지만 통증만 없어지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완치'의 의미가 '통증 없이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고, 별다른 불편함이 없이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신경차단술은 원치 과정에 큰 도움을 준다. 신경차단술에도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척추 시술을 고려해야 한다. '신경성형술'이라 불리는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앞서 기술한 신경차단술보다 좀 더 적극적인

기고

등산로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전 관리



이영성 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Age)의 조사가 의하면 한국의 노후 소득 수준은 최하위권인 반면, 건강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는 가난하지만 건강이 좋은 것은 주변에 하고 작은 산들이 많아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즐겨 산행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산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심 크고 작은 산 주위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한 결과 산행인들이 붐비어 산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하여 무등산과 동내 공원의 등산로는 많이 훼손되었다. 다행히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으나 더 세심한 사공과 관리가 요망되어 오래 전 관련기관 단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도 있다.

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꾸만 풀이 나있는 옆길을 걷다보니 길이 점차 넓어지고 새로운 길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산지개발과 이렇게 훼손된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는 셋강 지류와 큰 강까지 매우고 범람하니 이를 준설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등산로는 반드시 옆 지면보다 약간 높게 S자 형태로 만들어 등산로 옆으로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잘 내주어야 쉽게 깔리지 않고 완만하여 걷기 편한 길이 된다. 등산로가 깊게 패인 곳은 메우어야 하고 길 따라 양쪽 낮은 쪽으로 가능한 촘촘하게 배수로를 만들어 물이 직류하지 않게 분산시킴으로써 더 이상 토사가 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

2014년 초 광주시와 무등산관리공단 등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이 있었다.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건강 증진 등을 위해 도심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탐방로 정비와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제안 내용을 반영하겠다. 지적한 공원 내 등산로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였다. 마침내 지난 8월경부터 인근 공원 내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등산로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감사한다. 이번 추서 후 내린 호우로 공사 중인 등산로에 우러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 잘 살펴 시공하며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기관의 세심한 사후관리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공중도덕을 지키는 자세가 절실하다.

산림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나라마다 기온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로부터 높이가 100m를 넘어야 산으로 보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으로 되어 있어 남한에만 총 4440개의 산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는 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 산과 더불어 살다가 죽어서도 대개는 산으로 간다.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눈이 내려 녹아내릴 때 경사진 곳은 물이 위에서 서서히 흘러내리면서 차츰 등산로를 따라 아래로 흐르면서 합류하여 다량의 급류가 된다. 등산로가 깎여어 산사태도 나고 상당히 큰 나무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 고사하거나 바람에 쓰러지면 쉽게 베어 버리고 나무를 심지 않아 시원한 그늘이 없어지고 만다. 또한 겨울철에는 얼었다 녹으면서 땅이 질어 신발에 흙이 심하게 달라붙

경사진 곳에는 통나무 등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계단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계단 간격이 너무 넓고 보폭이 맞지 않아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단 옆길을 통행하므로 비가 오면 옆길은 물결이 되고 만다. 또한 설치된 나무 계단으로 밧물과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깔리고 패여 계단이 엉성하게 드러나고 높아져 밟고 다니기 어렵게 되었다. 차라리 디딤돌을 깔고 배수로만 만들어 주었으면 산도 보호되고 예산도 절약되었을 것이다

광주에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녹지가 미흡하여 여름철에 대구보다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물은 산속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 내물이 되어 강으로 흘러내리다. 큰 강 위주 대규모 사업에 우선하여 산지와 셋강 지류 등 작은 곳을 소홀하지 않는 올바른 치산치수 행정이야말로 물러받은 금수강산을 가꾸고 보존하여 자랑스럽게 후세에게 유산으로 길이 물려줘야 하는 국가책임인 것이다.

이로부터 치산치수는 통치의 크나큰 덕목이었다. 40~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벌거벗은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 주민, 학생, 직장인 등이 식목행사에 많이 동원되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주로 목재를 사용하던 연료와 건축자재가 다른 것으로 크게 전환됨에 따라 날벌이 없어져 우리나라 산림은 놀라울 정도로 율창하게 되었다.

경사진 곳에는 통나무 등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계단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계단 간격이 너무 넓고 보폭이 맞지 않아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단 옆길을 통행하므로 비가 오면 옆길은 물결이 되고 만다. 또한 설치된 나무 계단으로 밧물과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깔리고 패여 계단이 엉성하게 드러나고 높아져 밟고 다니기 어렵게 되었다. 차라리 디딤돌을 깔고 배수로만 만들어 주었으면 산도 보호되고 예산도 절약되었을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시청 압수 수색... 더욱 확산되는 '김용구 파장'

광주시청이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바짝 얼어붙었다고 한다.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 비리와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곧바로 일부 공무원을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례없는 검찰의 움직임에 관가와 지역사회에서는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씨가 민선 6기 초부터 관공공사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타깃 것이 터졌다'는 반응도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규모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주 타깃이었다. 검찰이 관련 서류를 쟁겨간 환경생태국은 태양광 시설 건립 사업과 삼각동 송선전로 지중화 사업을 관장한다. 또 재정담당관실은 광주시금고 선정, 도시재생국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맡고 있다. 인·허가가 가장 많은 건설교통국에서도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가 이미 일부 컨설팅을 통해 현안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고, '실세'로 통해 왔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세간에서는 김 씨의 행적을 감안해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다수의 건설사와 지방 공기업까지 연루됐을 가능성도 눈여겨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 사무실은 김 씨 직·간접적으로 컨설팅을 해 온 부서여서 주목된다. 응당 검찰은 사업 컨설팅을 연결 고리로 김 씨와 업체의 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러 할 것이다. 이밖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광주시의 대규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파장이 일과성 비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널리 퍼진 풍문대로 10여 개의 업체가 관련된 대규모 게이트인지를 철저히 파헤쳐 비리 관련자는 모두 엄벌해야 한다. 광주시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을

광주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된 접수한 사례가 최근 2년8개월 동안 600건에 달했고, 이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들이 의료조치 미흡, 부당한 징벌, 서신 불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조치 미흡이 96건, 교도관 등에 의한 폭행이나 모욕·폭언, 반말과 욕설 등이 73건이었다. 서신 검열·진정 방해·영지 불허·집권 방해 등 교도관들의 부적절 행위도 35건이나 접수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대섭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인권침해로 인한 수용자 진정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인권사무소에는 총 59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2014년 237건, 2015년 225건, 올해 8월까지 137건이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건강·의료 관련 인권침해가 전체의 22%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가진 수용자들이 자칫 교도소 측의 방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처우 관계·인격권 침해'가 171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의료' 132건(22%), '조사·징벌·계구' 117건(19.5%), '시설·환경' 61건(10.2%), '폭행·가혹 행위' 48건(8%), '외부교통권리 제한' 35건(5.8%) 등의 순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물론 교정시설의 인권침해는 세상 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건 대다수의 교정시설이 교화보다는 구금에 방점을 둔 편의주의적 교도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정당국은 수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 보장 등 인권침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 지역 공연장에서 그는 유명 인사다. 무용·클래식 음악·연극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열혈 관객'이다. 갤러리와 미술관 역시 그가 즐겨 찾는 곳이다. 마음 에 드는 공연을 만나면 출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쁨을 소박하게 밝힌 것도 나쁘다. 작품에 감동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을 예술가들에게 '꼭' 전한다. 어쩌면 작가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일 터다.

를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도 있다. 며칠 전 문화전당에서 1만5000명이 함께 연주하는 행사에 참여했던 그녀는 "혹시 나 혼자 틀릴까봐 떨렸지만, 그날 일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중 하나는 광주극장이다. 현재 그는 '광주극장 81주년 기념 이벤트'를 열고 있다. 영화 티켓과 책 등을 상품으로 내놓았다.

한 시민들은 오토이 작품의 생산자가 됐다. 비엔날레의 '나도 아티스트' 행사 역시

시민 예술가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이들 중 그는 문화생활을 가장 '많이', '다양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 그는 'Polsike'로 불린다. 그럴듯한 외국어 단어인 듯싶지만 '폴시케'라는 전라도 사투리에서 따왔다.

한 시민들은 오토이 작품의 생산자가 됐다. 비엔날레의 '나도 아티스트' 행사 역시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이들 중 그는 문화생활을 가장 '많이', '다양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 그는 'Polsike'로 불린다. 그럴듯한 외국어 단어인 듯싶지만 '폴시케'라는 전라도 사투리에서 따왔다. 늘 문화 향유자였던 그가 문화 생산자가 됐다. 아내와 여행하며 찍은 풍경 사진으로 사진전(3일까지,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 갤러리)을 열고 있는 중이다. 전시장을 찾은 이들은 사진 앞에서 저마다의 추억들을 꺼내 놓느라 부산했다. 나이 60이 넘었지만 올해 '오키리니'

우리 이웃이 예술가가 되는 기쁨이다. 올해 두 번째 행사를 기획 중인 '광주 시민연극제'는 연극 무대에 처음 서는 시민극단들이 주인공인 축제다. 지난해에는 '정거장' '화사한 마을극단' 등 6개 극단이 참여했고 올해는 더 많은 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축제를 기다리고 있다. 좋은 작품을 만나 감동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한때, 직접 예술 속으로 뛰어들 때 느끼는 감정은 또 어떤 걸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시민예술가의 약진, 문화도시 광주를 탄실하게 하는 힘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